

광주에 삼성전자 플렉트 첫 생산라인 구축 '관심'

첨단산단, 국내 생산거점 유력…'신산업 도시' 기대 시와 협약체결 후 사업 규모 등 실무 협의 속도낼 듯



플렉트그룹이 공급하는 공기냉각, 액체냉각 등 주요 공조 솔루션 제품들.

삼성전자가 최근 2조4800억원에 인수한 유럽 공조 전문 기업 플렉트그룹의 국내 생산라인 구축 후보지로 광주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그룹과 LG이노텍 등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계획도 잇따라 발표되면서 광주시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수한 독일 냉난방공조(HVAC) 업체 플렉트그룹의 첫 생산라인을 올해 광주지역에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기와 함께 고속 성장하는 공조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11월 플렉트그룹 인수를 완료하고, 국내 첫 생산 거점으로 광주 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첨단산단 내 삼성전자 제3공장에 가전 생산라인이 구축돼 있어 플렉트

생산라인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냉각 설비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공조 시스템을 AI 벤류체인의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려는 측면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광주시가 플렉트 생산라인의 유력한 입지를 평가된다.

다면 현재까지 광주시와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협약 체결 이후 부지와 사업 규모, 인력 운영 등 세부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고성장 중인 글로벌 공조시장에서 본격 진출하기 위해 15억 유로(약 2조4000억원)를 들여 독일 플렉트그룹을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플렉트의 글로벌 최고 수준 공조 기술력에 자사의 개별 공조 기술을 결합해, 2030년까지 62조원 규모로 성장할 AI·데이터센터 공조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플렉트는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센터, 대형 상업시설, 병원 등을 위한 중앙공조, 정밀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10여개의 생산거점과 유럽·미주·중동·아시아까지 폭넓은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생산거점은 유럽, 미주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인도에도 공장을 가동 중이다.

광주시에 생산라인이 들어설 경우, 해당 공장에서는 냉각수 분배 장치(CDU·Coolant Distribution Unit) 등 데이터센터용 제품이 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플렉트의 국내 생산라인 구축을 계기로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10년 내 세계 공조 시장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플렉트 생산라인이 광주에 구축될 경우 직접 고용은 물론 협력업체 유치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곧 청년층을 비롯한 지역 인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 공조·AI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기업 투자 유치를 계기로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팰리세이드 '북미 올해의 차' 수상

심사위원단, 상품성 등 '호평' 점수, 2·3위 두 배 이상 앞서 가족용 SUV 위상 더욱 견고

'270점 대 135점 대 85점'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2026 북미 올해의 차(NACTOY)' 유틸리티 부문에서 경쟁 차종을 큰 점수 차로 치고 최종 수상 차량으로 선정됐다.

북미 올해의 차 조직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수상 결과를 발표한 후 공식 홈페이지에 각 부문별 후보 차량들의 최종 점수와 심사평을 공개했다.

공개한 점수에 따르면 팰리세이드는 총 270점을 획득해 2위 낫산 리프(135점), 3위 루시드 그레이비티(85점)를 두 배 이상 격차로 앞섰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전문 기자 50명으로 구성된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은 팰리세이드의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와 완성도, 상위 차급에 준하는 고급감과 편의 사양을 수상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팰리세이드의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팰리세이드의 공간성과 실용성에 대한 좋은 평가도 이어졌다. 팰리세이드의 넉넉한 레그룸과 적재 공간, 그리고 고객 일상과 이동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첨단 편의 사양이 장점으로 꼽혔다.

구독자 505만명의 유명 자동차 유튜버 이자 심사위원인 더그 드무로(Doug DeMuro)는 "이미 홀륭했던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킨 점이 인상적"이라며 "팰리세이드는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의 학술상 우승자"라고 평가했다.

또 유튜브 구독자 109만명을 보유한 레드라인 리뷰(Redline Reviews)의 편집

장 겸 심사위원 소피안 베이(Sofyan Bey)는 팰리세이드의 첨단 기술과 고급 감각에 주목하면서 "팰리세이드는 가격 대비 최고의 가족용 SUV"라고 말했다.

이러한 심사위원 평가를 뒷받침하듯, 북미 주요 자동차 매체들은 신형 팰리세이드를 직접 시승하며 상품성과 주행 완성도를 심도 있게 조명해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유명 자동차 매체인 카엔드라이버(Car and Driver)는 팰리세이드를 '2026 10베스트 트럭 & SUV' 모델 중 하나로 선정하며, 등급에서 돋보이는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은 팰리세이드의 시승기뿐 아니라 포드 익스플로러,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의 비교 시승기도 공개하며, '어떤 3열 SUV가 더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전제 조건으로 경쟁력을 분석했다.

미국의 대표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MotorTrend) 역시 총 3편의 시승기를 통해 팰리세이드를 자세히 다뤘다.

해당 기사에서는 카엔드라이버와 켈리블루북이 짚은 팰리세이드의 강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됐으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높은 완성도가 핵심 장점으로 부각됐다.

팰리세이드 관련 유튜브 리뷰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소비자의 관심도 뜨겁다. 대표적으로 더그 드무로(Doug DeMuro)와 레드라인 리뷰(Redline Reviews)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팰리세이드 리뷰 영상은 각각 조회수 약 134만회, 19만회를 기록하며 북미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한편 팰리세이드는 이번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며 대표적인 가족용 SUV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2026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서 최종 수상 차량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 국내 최초 글로벌 스마트 빌딩 인증

빌딩 통합 솔루션 적용 '팩토리얼 성수' 골드 등급

삼성전자는 자사의 빌딩 통합 솔루션 'b.IoT'를 적용한 팩토리얼 성수 빌딩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 빌딩 국제 인증 스마트스코어의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b.IoT는 공조·조명·전력 등 빌딩 내 주요 설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하는 AI 기반 솔루션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스마트시티 인증 전문기업 '와이어드스코어(WiredScore)' 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스마트 빌딩 인증 제도로, 건축물에 적용된 사물인터넷(IoT)·AI·비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의 구현 정도와 실제 효과·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스마트스코어'는 평가를 통해 플래티넘(Platinum), 골드, 실버(Silver), 공인(Certified) 순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미국 뉴욕 휴斯顿 텍사스 타워(Texas Tower), 흥국 '더 헨더슨(The Henderson)'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 빌딩들

도 이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팩토리얼 성수'는 2020년 성수역 인근 물류 부지를 개발해 만든 오피스 빌딩으로, 기획 단계부터 삼성전자와 테크 레디(Tech Ready) 빌딩 콘셉트를 설정해 협업을 진행했다.

'b.IoT'는 공조·조명·전력 등 빌딩 내 주요 설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하는 AI 기반 솔루션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스마트시티 인증 전문기업 '와이어드스코어(WiredScore)' 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스마트 빌딩 인증 제도로, 건축물에 적용된 사물인터넷(IoT)·AI·비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의 구현 정도와 실제 효과·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스마트스코어'는 평가를 통해 플래티



삼성전자의 빌딩 통합 솔루션 'b.IoT'로 '팩토리얼 성수' 빌딩 운영 상태 전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모습.

중앙 공조와 시스템에어컨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약 27%를 절감했다.

특히 'b.IoT'는 현실의 빌딩을 가상 공간에 3D 모델로 구현해 빌딩 내 모든 설비 상태를 실시간 시각화 하는 '디지털 트

윈' 기술을 지원한다.

관리자는 가상 환경에서 시각화된 3D 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관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빌딩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롯데이노베이트, 기술개발 MOU 추진

자율주행차·스마트 타이어 등 적용 상호 기술 개선…자율주행 기술 확보

금호타이어가 롯데이노베이트와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타이어 기술의 실증 추진을 위한 상호 기술 개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일 서울 롯데이노베이트 본사에서 MOU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상품개발3부문 송강종 상무, 롯데이노베이트 CX본부 모빌리티부문 운용팀 상무 등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MOU를 통해 롯데이노베이트의 자율주행차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타이어 상리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용 타이어 '이노비(EnnoV)'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호타이어가 제공하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타이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모듈과 차량 내 무선통신기를 통해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온도, 마모 등을 측정한다.

특히 운전자에게 최적의 공기압 모니터링, 실시간 상태 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고 더불어 연비 및 타이어 교체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한다.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 김영진 전무는 "금호타이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환경에 맞춰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새로운 플랫

타이어와 롯데이노베이트와 스마트 타이어 기술의 실증 추진을 위한 상호 기술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폼 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롯데이노베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타이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통해 차량 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순천교통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차량 관리 기능을 포함한 타이어 정보관리 시스템의 상용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AGT 철도차량으로 확대 적용해 의정부 ULINE 노선에서 성능을 실증한 바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국내 수출기업들이 꿈은 최대 리스크는 '환율·관세'

국내 수출기업들은 올해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의 관세 인상을 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은 올해 매출 목표를 작년보다 높게 설정하고 투자도 유지·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영 환경 전망을 놓고는 개선·악화 전망이 맞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달 17~26일 국내 수출 업체 1천19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경영환경 전망' 온라인 설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수출기업의 38.6%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선 전망은 31.1%, 악화 전망은 30.3%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작년(14.2%)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해 수출기업들의 경영 환경 인식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생활용품(개선될 것 48.2%), 의료·정밀·광학 기기(42.2%), 반도체(38.2%) 등 분야의 경영 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았고, 석유제품(악화할 것 45.5%)과 섬유·의복(43.1%) 등은 악화 우려가 컸다.

연합뉴스